

중동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정재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부연구위원
jwjung@kiep.go.kr

손성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shson@kiep.go.kr, 044-414-1266

장윤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yhjang@kiep.go.kr, 044-414-1330

유광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아프리카중동팀 전문연구원
khryou@kiep.go.kr, 044-414-1165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최근 중동 산유국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정책은 외국인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정책의 구조적 변화
 - 중동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수준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2014년 이후 유가 하락으로 인한 산유국 재정위기 장기화, 이주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 구조로 인한 막대한 해외송금액과 높은 내국인 실업률이 변화를 촉발
- ▶ 중동의 전통적 가부장제도와 권위주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법·제도, 석유 중심 경제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경제 참여가 저조
 - 특히 걸프협력회의(GCC) 지역에서는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여성 실업률을 유지
-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후견인제도 완화, 운전 허용, 육아 지원제도 도입 등 사회활동 제약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여성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정책 강화 추진
- ▶ 경제적 효과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는 뚜렷한 반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효과보다는 상호 보완효과가 강하게 나타남.
- ▶ 우리나라는 교육 및 직업훈련, 노동 및 행정, 여성 관련 유망 진출분야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대응 전략 필요
 - 현지 여성 교육 시설 설립 관련 정부 간 협력 강화, 국내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및 직업훈련 강사 양성 등에 대한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 여성 취업지원 플랫폼 및 노동인력 수급 전망시스템 등에 대한 수출, 여성 정책 공동 연구 추진
 - 미용 상품 및 서비스,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 유망산업 합작투자를 통한 현지 진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직업 및 기술 교육을 통한 협력 확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에서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 및 사회 참여수준은 전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낮음.
 - 중동지역의 문화나 종교적 특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의 경제구조가 가부장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지대국가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음.
- 최근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여성의 경제 참여를 장려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지대국가의 근간이었던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동지역 에너지 수출국의 재정위기가 초래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감축, 공공 일자리 감소 등 경제구조의 변화가 시작되었음.
 - 이주노동자가 민간 노동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막대한 해외송금액과 높은 내국인 실업률이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노동시장 개혁 요구가 커짐.
- 본 연구는 이런 중동 주요국의 정책 변화 배경과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정부간 정책협력 수요분야와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유망분야를 찾아내고자 함.
 - 우선 중동 주요국이 최근 앞다투어 여성의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배경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정책적 변화를 세부 분야별로 정리함.
 - 각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망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중동지역 핵심 협력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확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를 바탕으로 중동지역의 여성 경제 참여확대에 따른 소비재 시장의 변화를 전망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유망 산업과 품목, 그리고 이런 정책 변화에 따른 정부간 새로운 협력 수요 분야를 도출하여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과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및 현황

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저조 배경

- 중동지역 국가들의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특성때문임.

- 중동사회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도가 유지되어왔으며, 이러한 남성 중심 권위주의의 틀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제한되어 왔음.
- 중동사회에서 명예로 여겨지는 것을 어길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부의 명예가 실추하게 되는데, 남성과의 교류가 불가피한 여성의 공적 영역 활동은 여성의 명예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간주됨.

- 아울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중동 국가들의 제도 및 법적 환경이 비교적 열악함.

- 여성이 결혼, 취직 등에 임할 때 남성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남성후견인제도가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으며 중동국가 중 직종, 산업 등 여성노동에 관해 제한을 두고 있는 국가도 다수임.
- 중동국가들의 출산휴가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고 대부분 아직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지 않음.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일부 국가들은 출산휴가 동안의 급여를 고용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석유 중심 경제의 구조적 특수성도 여성의 경제 참여를 억제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 중심의 경제성장은 환율 등 대외환경 변동에 쉽게 영향을 받는 교역재 산업(Traded Sector)을 쇠퇴시켜 여성노동 수요를 감소시킴.
- 또한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여성의 의증임금(reservation wage)을 상승시켜 여성노동 공급을 감소시킴.
- 이러한 노동시장의 특성과 막대한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한 복지혜택이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에게 주로 제공되었다는 점이 맞물려 이 국가들에서 여성소외가 만연해짐.

② 여성의 정치 및 경제 활동 참여 현황

- GCC 지역에서 여성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부여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대체로 제한적임.
 - GCC 지역에서 여성의 선거 참여는 1990년대 이후에서야 가능하게 되었으며, 실제 여성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에는 사회·문화적 제약이 큰 편임.
 - 입법부 및 사법부 내 여성 비중은 전반적으로 낮으나 UAE는 여성 비중 할당 등을 통해 다른 지역 및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여성의 교육수준별 등록률은 남성보다 높고, 특히 고등교육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뚜렷함.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은 남성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등에서는 20~44% 포인트 가량 여성의 고등교육 등록률이 더 높음.
 - 이는 GCC 지역에서 여성 교육 인프라가 갖추어졌고 여성 교육에 대한 별다른 제약도 없다는 것을 시사함.
 - GCC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학생의 전공은 예술 및 인문학에 집중되어 있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고등교육 등록률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한 비중이 작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측면도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사회·문화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적절한 직장이 많지 않아 실업률도 남성보다 높았고, 임금격차도 크게 나타남.
 - 2018년 기준 OECD 및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40%를 상회하는 반면, GCC 국가들은 30%에도 미치지 못함.
 - GCC 지역에서는 남녀간 실업률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특히 여성 청년실업률이 높게 나타남.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 전체 실업률(20.8%)이 남성 전체 실업률(2.5%)보다 약 8배 이상 높았으며, 청년 남성 실업률은 18.5%, 청년 여성 실업률은 47.0%로 청년 여성은 남성보다 2배 이상 높았음.
 - 외국인 비중이 큰 민간고용시장에서 가정부, 단순 서비스직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 비중이 높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20~47% 수준에 불과함.
 - 반면 자국인 남녀 모두 임금수준은 높고 업무강도는 강하지 않은 공공부문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 공공부문에서 남녀간 임금격차는 크지 않음.

2) 중동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정책

① 여성의 사회활동 제약요인 제거

● 여성의 노동 참여가 제한되었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취업과 관련한 후견인제도가 완화되는 추세를 보임.

-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사회개발부는 여성이 의류매장, 놀이공원, 취사, 출납원 등의 직종에 취업 시 후견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함.
- 2017년 남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여성들이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칙령이 발표됨.
- 2019년 8월부터 여성은 남성 후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혼인, 이혼, 자녀의 출생을 신고하고 자녀의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개혁정책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여성의 운전금지 해제임.

- 2017년 9월 여성의 운전권리를 인정하는 칙령이 발표된 이후 2018년 6월 24일부터 여성의 운전이 허용됨.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이동제한은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낮추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여성의 운전허용은 여성 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성이 보다 만족스럽고 수익성 높은 직업을 가지게 될 가능성을 높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민간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에 여성 근로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우술(Wusool) 프로그램을 발표함.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제도를 도입하며 이동의 제한 없이 여성의 민간부문 노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GCC 국가에서도 출산휴가 및 육아지원 제도가 강화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에 출산휴가 제도를 개정하여 여성 노동자가 10주의 유급 출산휴가에 더해 1개월간 무급으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의 1일에서 3일로 확대함.
-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사회개발부는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4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육지원프로그램인 꾸르라(Qurrah) 계획을 발표함.
- UAE는 2016년부터 각 토후국별로 새로운 출산휴가 제도를 발표하였는데 유급 출산휴가 기간 연장, 자녀돌봄을 위한 근무시간 단축 등이 주요 정책임.

② 종사 가능 직종 마련 및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민간부문 취업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점진적으로 확대됨.

- 2012년부터 여성 속옷 등 여성 관련 물품을 파는 상점에서 남성 직원 대신 여성 직원의 고용이 의무화됨.
- 2012년 10월 법무부는 여성 변호사에 대한 개업면허 발급을 승인함.
- 단기간 내 제조업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관광업 등 서비스산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여성의 중점 취업분야로 추진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정치·경제 부문에서 여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 쿼터를 지정함.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013년 자문기구인 슈라위원회(Shura Council) 위원 150명 중 30명을 여성으로 지정하는 칙령이 발표되었으며, UAE는 연방국가회의(Federal National Council) 내 여성 의원 비중을 50%로 늘리도록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공장에서의 여성 고용을 의무화하여 생산라인의 모든 단계에서 최소 10명의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함.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성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확산됨.

● 중동지역 내 여성의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킹압둘아지즈과학기술도시(KACST)의 기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인 바디르(Badir)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부문에서 여성 창업을 지원함.
-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WITC(Women's Incubator and Training Center)가 서비스 및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 PSFW(Prince Sultan Fund for Women Development)와 같은 비영리단체가 여성의 발전 및 기업활동을 지원함.
- UAE에서는 2002년 UAE 연방 상공회의소(FCCI) 계획하에 에미리츠 여성사업가위원회(EBWC)가 설립되고, 이를 위한 지역별 여성위원회가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에 각각 설립되어 여성의 창업, 교육·훈련,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음.

③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강화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도 강화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TVTC는 2006년에 처음 여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여성 취업 증대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 민간부문 내국인 고용 확대지원을 위해 설립된 인적자원개발펀드(HRDF)는 실습(on-the-job training) 프로그램인 탐히르(Tamheer), 이러닝(e-learning) 교육 프로그램인 두루(Doroob) 등 고용 지원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UAE는 다양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전문시설을 구축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④ 시사점

- 사우디아라비아, UAE 각국 정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며 관련 정책을 활발히 추진함에 따라 변화의 속도는 향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도 향후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여성이 주체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부상하면서 남성 주도의 사회적 분위기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런 변화에 따라 우리 정부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은 현지의 기업환경과 수요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3) 여성 경제 참여 확대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 최근 여성 경제 참여 확대정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내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 시장참여율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효과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효과를 분석함.
 - 경제성장효과와 경우 내국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1%p 증가할 때 1인당 실질 GDP가 약 0.02% 가량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확인함.
 -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체효과보다는 상호 보완효과가 강하게 나타나, 아직 가계부문 서비스업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노동시장 분리가 뚜렷하게 남아 있음을 시사함.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비전 2030 발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비용 인상, 고용금지부문 확대, 취업비자 발급 제한정책 외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제약 요소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여성인력이 대체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와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다양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과 경제 활동에 필요한 교통, 육아, 복지 등 핵심 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3. 정책 제언

1) 교육 및 직업훈련 협력

-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의 교육 등록률은 남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수요에 맞춘 교육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이 분리되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대학교에서도 성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제약되어 있음.
 - 한국에서는 1980~90년대부터 성 고정적인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여학생의 진로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한국의 정책 추진경험을 사우디아라비아와 공유하고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시설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이 가능할 것임.
-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학생과 기업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부문에서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대학교 대다수가 인턴십 프로그램인 코업(co-op) 프로그램을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Aramco), 화학기업인 사빅(SABIC) 등 현지 기업뿐 아니라 KPMG와 같은 다국적기업도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 최근 한국에서의 코업 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한국기업이나 한국에서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양국간 인적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우디아라비아 내 여성 직업훈련 수요가 높아지면서 훈련 시설 및 시스템 구축, 인력 양성 부문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여성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나 아직 여성만을 위한 훈련시설이나 세분화된 시스템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한국에서는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과정과 민간자격증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한국여성 교육개발원이나 여성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하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같은 여성 전문기관이 존재함.
 - 이러한 형태의 시설과 시스템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수요에 맞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직업훈련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사인력 양성 관련 협력도 이루어질 수 있음.
 - 메이크업, 미용, 디자인 관련 학과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당 분야 강사인력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간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인력 양성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유학생을 국내 대학교에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음.

2) 노동 및 행정 부문 협력

- 노동 및 행정 분야에서는 여성 취업지원 플랫폼 수출을 우선적인 협력가능분야로 고려해볼 수 있음.
 - 구직자가 취업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중요함.
 -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국가들에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성을 위한 지원이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은 거의 전무함.
 -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지원시스템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중동국가의 문화와 수요에 적합한 취업지원시스템의 응용·개발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대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사업을 생각해볼 수 있음.
 - 중동지역에서 자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일·가정의 양립과 육아·보육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중동국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부족함.
 -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관련 법제를 개편하고 중장기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이에 대해 비교적 오랜 시간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상호 정책협력이 가능할 것임.
 - 이는 양국 정부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향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시스템을 중동국가들에 전수할 수 있음.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확대 시행되면서 대체인력제도가 활성화되고 여성의 전공 다각화로 이들의 진출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중동지역 내 노동인력 공급 및 수요 예측의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중동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노동인력 수급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과 경험이 부족함.

-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지난 2007년부터 10년 후의 노동인력 수급을 예측해 오고 있으며,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동지역 여성 관련 정책 집행기관 및 연구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여성 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공동연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공동연구 추진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관련한 양국의 상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먼저 타진해볼 수 있을 것임.
- 주요 연구주제로는 앞서 살펴본 한국의 관련 정책 및 경험 공유와 같은 양국 협력의제를 발굴하는 것뿐 아니라, 여성 노동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는 것 등도 생각해볼 수 있음.

3) 유망 진출분야 및 시사점

● **향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광상품, 미용상품 및 서비스, 가전제품 및 주방기기 등의 수출 및 현지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국가 중 인구규모, 구매력, 여성 관련 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토대로 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진출 유망국가라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양국에 자동차 및 부품, 전력 및 건설 기자재, 휴대전화 등을 주로 수출해왔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후견인제도 완화, 여성 운전 허용, 여성 고용 증대, 의복 제한 완화 등의 여성과 관련한 정책 변화는 관광상품 및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가전제품, 미용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큼.

● **중동 산유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경제다각화, 내국인 고용증대 등 국가개발계획의 주요 과제로 추진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각각 내국인 우선고용제도인 사우디제이션(Saudization), 에미리티제이션(Emiratisation)을 도입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여성의 노동 참여는 기업의 고용가능한 인력풀을 넓힐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여성의 고용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됨.
- 내국인 우선고용제도와 더불어 국산부품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 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진출 시 단순수출보다는 현지 합작생산을 고려할 필요성이 커짐.
- 사우디아라비아 내국인의 기술역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가 내국인 기술교육을 강조함에 따라 직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시설 운영기업의 진출도 유망할 것으로 보임. **KIEP**